기초단체장 새해 청사진 박병종 고흥군수

"우주항공 중심도시 구축"

"투자유치와 우주항공산업을 연계해 2007년을 지역경제 도약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전남에서도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가장 열악한 지역이었던 고흥군이 올해 우주센터 준공과 함께 웅비의 날갯짓을 준비하고 있다.

박병종 고흥군수는 "올해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와 기대감을 안겨주는 해가 될 것"이라면서 지역발전에 일대 변화를 예고했다.

박군수의 이같은 자신감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우주체험관과 발사대 등 관련 시설이 그 위용을 드러내고, 답보상태에 있던 투자유치가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도양읍에 조선산단 조성

박군수는 투자유치와 우주항공산업을 지역발전의 양대 축으로 꼽고 있다. 도양읍에 중형조선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수려한 해양자원을 활용한 관광레저산업도 유치할 예정이다. 상반기에 준공될 우주센터와 함께 연구개발 및 대학연구시설 등이 집적화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립 청소년 스페이스캠프도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우주항공 중심도시'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고흥 8品 9味 10景'을 선정한데 이어 우도와 수락도 등을 '테마의 섬'으로 본격 개발하고, 특색있는 전원체험 프로그램 운영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쟁력 높은 친환경 농·수·축산업 육성에도 전력을 다하고 특히 고흥 쌀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선정 10대 브랜드로 끌어올리는 등 명품 쌀로 육성할 방침이다. 고품질 농산물 가공을 위해 저온저장고와 미곡 건조저장시설, RPC(미곡종합처리시설)도 현대화된다.

고흥 8品 9味 10景 선정

더불어 잘사는 복지 고흥 실현은 박군수의 역점 시책중 하나다.

90세 이상 노인에 대한 장수수당 지급과 오는 4월 준공되는 '고흥군 노인복지타운'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운영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노인 일자리 사업과 노인 자원봉사사업의 대폭적인 확대도 추진된다. 또 여성직업훈련과 맞춤식 여성사회교육을 강화하는 등 각종 여성참여 행사를 적극 지원하고 보건의료 서비스도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는 한편, 군지역에서는 전국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선진 응급의료체계 구축 시범사업'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는 분야다. 고흥~녹동간 국도 확장과 거금도 연륙·연도교 공사 등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에도 군정을 집중키로 했다.

'선진응급의료체계' 확대

남계지구 택지개발사업도 본격화된다. 고흥천 및 녹동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하고 시가지 가로수 식재 등에도 주력하겠다는 복안이다.

인재 육성 역시 지역발전의 중요한 축이다. '교육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장학기금 17억 조성, 청소년 수련관 건립, 우수학생 해외연수 등 지역 인재를 키우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전개된다.

/고흥=대성수기자 dss@

강진의료원 현대화 사업 난항

사업 예산 96억 삭감·병상 축소 걸림돌

신축 부지 선정싸고 전남도-강진군 이견

강진의료원 현대화 사업이 예산 삭감과 부지선정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전남도 의회는 지난해 말 정례회 최종 심의과정에서 강진의료원 BTL(민간투자 방식)사업예산을 당초 446억원에서 350억원으로 96억원 삭감했으며 병상규모도 320병상에서 250병상으로 대폭 축소했다.

이에 따라 고용인원과 병원 부대시설도 줄어들 수 밖에 없어 강진의료원을 전남 서남부 6개 지역(강진, 장흥, 영암, 해남, 완도, 진도) 거점병원으로 만들기로 했던 당초 사업취지가 크게 훼손되게 됐다.

부지선정을 둘러싼 전남도와 강진군의 견해차도 이 사업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전남도는 신축될 강진의료원이 서·남부 6개 군을 관할하는 도립 의료원이라는 점을 감안해 강진읍 서성리에 있는 기존 의료원보다 넓은 부지에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기존 의료원 부지는 경사진 곳이 많은데다 도로가 바로 곁에 있고 가격도 비싼 만큼 다른 부지를 물색하자는 입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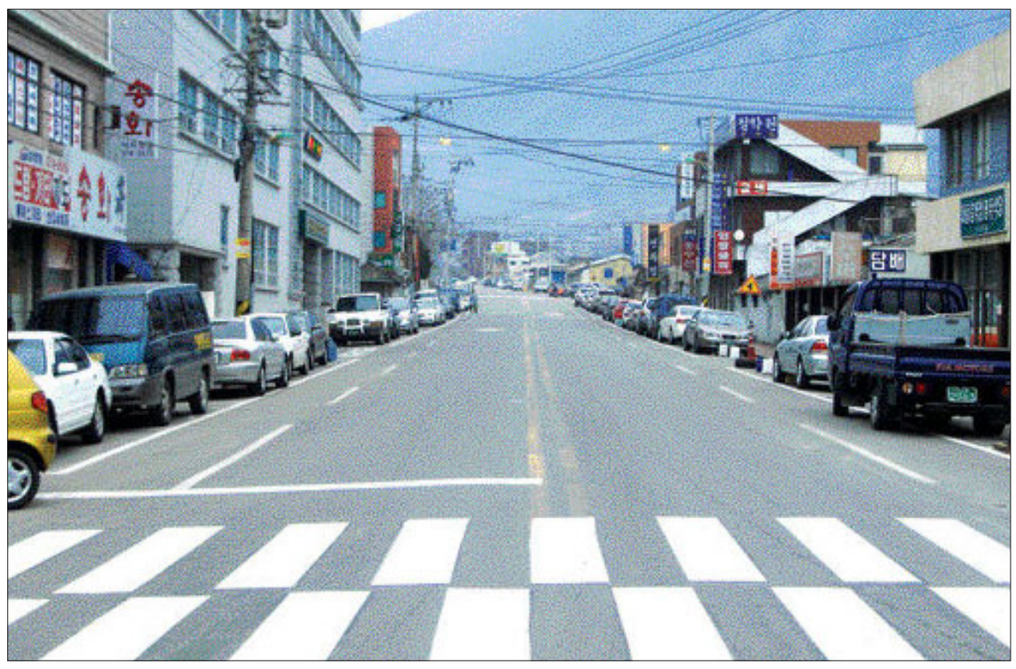
반면 강진군은 앞으로 강진의료원이 노인전문병원이 될 경우 인근 야산을 환자 산책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다시 부지를 옮길 경우 복잡한 이전 절차로 인해 의료원 건립이 해를 넘길 수 있다며 현 부지에 설립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강진의료원 현대화 사업은 강진군이 부지를 제공하고, 앞으로 20년동안 정부와 전남도가 예산의 절반씩을 부담하게 된다.

한편, 강진의료원은 전남도가 세운 서남부지역 유일의 공공의료기관으로 지난 1950년 4월 개원했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BTL사업이란(Build-Transfer-Lease)=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국가·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국가·지자체에게 시설을 임대(Lease)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 방식.



화순군청 앞 노상 주차장 개장

화순군청 종합민원실 앞 도로변에 노상 주차가 가능케 됐다. 군은 민원인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지난 14일 노상주차장 89면을 설치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나주 남평정수장 풀장으로 바뀐다

용도 폐지된 옛 남평 정수장이 체육근린 공원으로 변신한다.

나주시는 지난 96년 주암호 물 공급에 따라 사용이 중단된 옛 남평정수장 일대 3만여㎡에 20억원을 투입, 산책로와 체육시설, 파고라, 전망대 등이 갖춰진 근린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길이 50m, 너비 20m 규모의 정수장 침전지를 활용,

市, 근린공원 조성 일환 길이 50m 규모 내년 개장

어린이 풀장을 조성키로 했다.

시는 올 상반기 착공, 내년 여름에는 풀장을 개장할 계획이다. 이 정수장은 남평읍 시가지를 내려볼 수 있는 해발 80여m 정상에 설치돼 있는데다 주위에는 야생차가 자생하는 등 시민들의 쉼터로도 적격이다.

이 정수장은 용도 폐지뒤 현재 1일 4천여t의 물을 드들강에서 끌어올려 나주천 건천화(乾川化) 방지용으로 흘려 보내고 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농협 화순군지부 "새롭게 단장했어요"

농협중앙회 화순군지부(지부장 김보영)가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지난 17일 새롭게 개점했다. 〈사진〉

군지부는 3대의 자동화기기를 증설(출장소 포함 10대)하고, 내부공간을 '빠른창구', '상담창구', 'PB룸'으로 구분해 새롭게 단장했다.

김보영 지부장은 "화순군지부는 화순쌀 판매 등 경제사업과 금융사업 성과를 인정받아 2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전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신호등 미설치 횡단보도 장성군, 조명등 설치키로

장성군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 조명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성군은 차량통행이 빈번하고 주민이용이 많은 횡단보도에 대해 현지조사를 마친 후 3월부터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군은 운전자의 눈부심을 방지하고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일반 가로등과 특수 조명등을 함께 설치한다.

장성군 관내 횡단보도는 380여 개소로 25%인 100여 개소에만 신호등이 설치돼 있다. /장성=고재빈기자 jbgo@

영광 노인 응급환자 43% 늘어

금요일 교통사고 발생 급증

지난해 영광지역 긴급이송 환자 3천337명 중 60대 이상이 1천804명으로 5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광소방서(서장 김경안)가 지난해 구급활동을 분석한 결과 노인 응급환자가 전년도에 비해 43%(319명)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은 주로 관절염과 고혈압, 심장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영광소방서의 지난해 구조활동 처리건수는 334건으로 전년도 175건에 비해 90.9%(159건)이 증가했다.

교통사고의 경우 주5일 근무제 등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금요일에 주중 평균보다 19%나 높은 56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영광군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운영중인 '찾아가는 이동보건소'를 올해 3개 팀으로 확대해 지역주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조익상기자 ischo@